

#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731.3	16.6	137,500	-25	8.3	16.0	7.0	95.8	45.9	0.7	0.7
현대중공업지주	5,903.9	21.1	362,500	1.0	0.4	1.0	4.8	4.9	4.1	0.6	0.6
현대알렉스트리	509.9	5.2	25,050	27	14.9	-23.0	12.8	24	21	0.2	0.2
현대건설기계	1,042.2	7.6	52,900	0.0	24.6	2.7	23.9	3.4	2.5	0.4	0.3
삼성중공업	4,964.4	17.9	7,880	-0.3	4.5	152	6.3	49.7	24.7	0.5	0.5
대우조선해양	3,655.7	11.0	34,100	0.1	-0.1	142	-0.1	11.7	16.5	1.0	1.0
현대미포조선	2,556.3	11.6	64,000	0.2	4.4	40.4	6.7	13.8	10.0	0.5	0.5
한진중공업	179.2	5.3	1,690	16.6	-2.3	-10.3	2.1	34.0	8.5	0.2	0.2
현대엘리베이터	3,055.3	19.9	112,500	-1.3	8.7	292	5.1	19.9	19.3	2.7	2.4
두산밥캣	3,383.4	27.4	33,750	0.3	5.3	-6.8	7.1	12.4	11.7	1.0	0.9
현대로템	2,367.3	3.4	27,850	-1.8	-1.9	121	0.0	35.9	24.5	1.6	1.5
하이록코리아	264.1	47.5	19,400	-0.3	14.8	-16.7	17.9	8.8	8.0	0.7	0.7
성광밴드	320.3	15.4	11,200	0.4	-1.3	-8.6	-1.8	990.1	402	0.7	0.7
태apan	323.3	11.8	12,200	0.0	4.7	-5.8	4.3	72.9	35.6	0.8	0.7
두산중공업	1,288.6	13.5	11,000	-1.3	2.3	-6.4	13.1	-47.0	10.6	0.4	0.4
두산인프라코어	1,783.9	20.7	8,570	1.3	13.2	1.2	12.9	5.9	5.5	0.9	0.8
HSD에프진	196.4	4.8	5,960	2.6	12.5	27.2	12.9	-15.6	-14.3	0.8	0.9
한국항공우주산업	3,338.5	14.0	34,250	-0.9	7.4	10.0	7.4	49.6	25.4	3.0	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15.8	14.7	31,050	-2.8	-5.2	42	-4.5	101.3	22.3	0.7	0.7
LIG넥스원	763.4	9.9	34,700	-2.9	2.7	10.0	-6.1	70.2	21.3	1.5	1.4
태웅	219.1	5.1	10,950	0.5	9.8	-6.8	4.3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06.6	5.5	7,620	0.0	4.2	7.2	-1.3	-15.1	29.2	3.0	2.8
한국카본	310.8	14.6	7,070	0.0	4.3	6.3	0.4	110.1	22.1	1.0	0.9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Qatar starts sounding out yards for next blockbuster LNG order

카타르는 LNG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 한중일 주요 조선사를 만나 LNG선 공급능력을 밟아 전에 평가했다고 알려짐. 카타르는 2023년 이후부터 32mpta를 추가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LNG선 공급확대 가능여부를 확인.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LNG선은 최소 30척에서 최대 40척 근처로 예상됨. (TradeWinds)

### Tsakos Group books latest suezmaxes with Hyundai

현대중공업이 최근 수주한 suezmax급 탱커 2척의 발주처가 그리스 Tsakos 그룹으로 알려짐. 현대중공업은 이명의 유럽선주에서 15.8만DWT급 탱커 2척을 수주했고, 인도는 2020년 하반기로 발표함. 계약규모는 1.3억달러이며, 오일메이 Chevron에 용선될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 한국 조선업, 7년만에 中 치적이고 '수주 1위' 탈환

Clarksons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발주량은 2,860만CGT로, 한국은 1,263만 CGT를 수주하며 점유율 42.2%를 기록하여 전세계 수주 1위를 차지함. 이는 2011년 40.3% 점유율 이후 최고치임. 특히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선은 70척 중 66척(94%), VLCC는 39척 중 34척(87%)을 수주함. (마니투데이)

### 현대로템, 지난해 영업손실 1,962억원 ... 적자전환

현대로템은 2018년 매출액 2조 4,119억원(-11.5% YoY), 영업손실 1,961억원(적자전환), 순손실 3,080억원(적자지속)을 기록함. 주요 손실의 원인은 카타르 하수처리장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으로 알려짐. 또 철도사업의 경우 대부분 프로젝트가 설계단계에 그쳐 매출에 반영되지 못함. (뉴스1)

### Minerva Marine boosts LNG newbuild fleet with option at SHI

그리스 Minerva Marine은 2018년 말 삼성중공업에 LNG선 1척을 추가 발주했다고 알려짐. 작년에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2척을 발주하며 LNG운반선 시장에 진출, 10월에 1척을 삼성중공업으로 변경함. 당시 발주선가는 척당 1.83억달러였으나, 연말에 밸류한 옵션선 1척은 1.85억달러로 알려짐. (TradeWinds)

### 은성수 "조선사 저가 수주엔 RG 못줘"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올해 대출과 투자금 보증지원을 작년보다 3조 9,000억 원 증액한 13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힘. 작년부터 조선, 건설, 플랜트 등 수주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또 현세 지나친 저가 수주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RG 발급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서울경제)

### 현대글로벌서비스, 친환경 선박사업 성장세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올해 매출목표를 최대 8천억원으로 설정했다고 알려짐. 이는 작년 매출목표 4,100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금액이며, 2017년 매출 대비 230% 이상 증가한 수치임. 매출목표 상향의 배경은 친환경 선박 개조사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알려짐. (뉴데일리)

### 두산인프라코어, 이번엔 남미 진출... 신홍시장 잇따라 개척

두산인프라코어는 칠레 Besalco와 굴삭기를 개조한 산림용 특수장비 21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베살코는 광산, 산림, 건설 분야 대기업으로 300여대 건설기계를 운용 중임.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미얀마에서 22톤급 양식장 작업용 굴삭기 20대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신홍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임. (파이낸셜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1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1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